

“함께 뛰며 만든 인연, 미래를 약속했어요”

3·1절 전국마라톤이 맺어준 김창현·김선영씨 커플

작년 10km 코스 첫 만남...1년만에 하프코스 완주 서로 “고생했다” 감격의 포옹...내년에도 참가 약속

“3·1절 전국마라톤이 맺어준 소중한 인연 매년 출전을 통해 알뜰살뜰 키워나갈래 합니다.”

1일 3·1절 마라톤대회 하프코스에 참가한 김창현(21)씨와 김선영(여·21)씨 커플은 서로 손을 꼭 잡은 채 골인 지점을 통과했다.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이 이들을 향해 환호성을 터트리자 쉼없는 듯 고개를 숙이는 여자친구 선영씨를 남자친구인 창현씨가 “고생했다”며 꼭 끌어안았다.

사건 지 1년이 된 이 청춘커플은 지난해 3·1절 마라톤대회 10km 코스에 참가했던 것이 인연의 시작이다. 당시 창현씨는 평소 친구로 지내던 선영씨에게 호감을 느끼면서 고백할 방법을 생각하던 중 3·1절 마라톤 대회 참가를 제안했다.

창현씨는 “선영이는 고등학교 다닐 때 알게 된 친구였지만 만나면서 귀여운 외모와 서글서글한 성격 등에 끌려 일부러 마라톤대회 참가를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체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창현씨는 만능 스포츠맨으로 어려움 없이 10km 코스에 참가할 수 있었지만, 선영씨는 운동 경험이 없었던 탓에 대회 전부터 걱정이 많았다. 둘은 마라톤 완주를 핑계로 대회 한 달 전부터 매일 등산과 자전거 타기 등 훈련을 병행한 데이트를 함께했다고 한다.

이렇게 체력훈련에 성공한 둘은 10km 코스 완주에 성공했고, 창현씨는 그동안 숨겨왔던 마음을 고백하게 됐다. 갑작스런 고백을 받은 선영씨는 당황스러웠지만 극한의 상황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창현씨가 “딱! 내 남자다”라는 느낌을 받아 그 자리에서 승낙을 했다. 그로부터 1년 뒤

친구사이에서 연인으로 발전한 계기가 된 3.1절 마라톤대회에 1주년을 기념, 다시 한번 참가를 했다.

선영씨는 “이전 10km 코스를 달릴 때보다 이번 하프코스는 두 배는 더 힘들었던 것 같다”며 “반환점을 돌 때 정말 포기하고 싶었는데, 남자친구가 손을 꼭 잡고 함께 달려줘 다시 한번 완주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창현씨와 선영씨는 3·1절 전국마라톤 대회를 통해 서로 의지하고 끌어주며 애뜻함과 성취감 등 다른 커플들이 느낄 수 없는 감정을 공유했다. 남자친구가 서울에서 대학에 다녀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지만, 둘 사이엔 마라톤을 통해 다진 든든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 선영씨가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다리엔 통증이 물려오는 등 체력의 한계를 느낄 때, 옆에선 사랑하는 창현씨가 다독여주고 땀을 닦아주면서 소중한 인연을 차곡차곡 쌓았다. 그래서 이들 커플의 사랑전선은 다툼이 오라가지 않는다. 사소한 말다툼으로 감정이 상할 땐 마라톤 땀 때의 추억을 되새기면 금세 화해모드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한다.

창현씨와 선영씨는 “힘든 과정을 연인과 함께하면서 서로 믿고 의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정과 소통을 느낄 수 있다”며 “호감을 가진 사이라면 마라톤을 통한 인연쌓기에 도전해보라고 권하고 싶다”고 밝혔다. 창현씨는 “인연을 만들어준 3·1절 마라톤대회에 앞으로도 꾸준히 참가하며 중매쟁이 3·1절 마라톤의 의미를 되새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지난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뒤 연인으로 발전한 김창현(21)·김선영(여·21) 커플이 1일 제50회 3·1절 마라톤대회에서 하프코스 완주를 성공한 후 하트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나병주기자 mjna@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02 | 해질 15:30
해진 18:28 | 달질 04:37

3월의 화창한 첫 월요일
제주도 남쪽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았다.

광주	맑음	-2/11	보성	맑음	-3/10
목포	맑음	-2/9	순천	맑음	1/11
여수	맑음	1/9	영광	맑음	-4/9
나주	맑음	-5/11	진도	맑음	-3/10
완도	맑음	-1/10	전주	맑음	-3/10
구례	맑음	-1/11	군산	맑음	-2/8
강진	맑음	-3/10	남원	맑음	-4/10
해남	맑음	-4/10	홍산도	맑음	2/8
장성	맑음	-5/10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북서~북	0.5~1.0	남서~서	0.5
남해	남부	북서~북	0.5~1.5	남서~서	0.5~1.0
남해	서부	서~북서	0.5~1.0	서~북서	0.5
남해	서부	서~북서	0.5~1.5	서~북서	0.5~1.0
남해	서부	서~북서	0.5~1.5	남서~북서	0.5~1.5

3(화)	4(수)	5(목)	6(금)	7(토)	8(일)	9(월)
☁	☁	☁	☁	☁	☁	☁
1/9	-2/4	-2/7	-1/10	2/12	1/13	2/11

무등산 장불재·중머리재 친환경 복원

국립공원공단, 보전 계획 마련

무등산국립공원 장불재와 중머리재를 친환경적으로 복원하는 등 무등산 보전 관리 종합계획이 마련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1일 ‘지역통합과 생태까지 증진을 통한 환경복지 선도 공원’을 비전으로 담은 무등산국립공원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무등산 국립공원이 구체적인 보전 관리계획을 마련한 것은 지난 2012년 국립공원 지정 이후 처음이다.

오는 2022년까지 추진될 종합계획은 4대 전략목표와 17개 추진전략, 48개 계획과제, 156개 세부 추진내용을 담고 있다. 무등산사무소는 4대 전략목표로 핵심 생태계 보전과 복원, 생태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협력과 공영관리 명맥 계승, 미래지향적 공영관리 기반 마련 등으로 정했다.

주요 사업으로 국립공원 최대 북방산 개구리 산란지인 평두메(북구 화암동) 습지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무등산 내 풍혈지대를 보전하고 특화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풍혈(風穴)지대는 바깥 기온과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람이, 여름에는 찬 바람이 나오는 바위틈 등을 말한다. 이 밖에 빗강애에 의한 생태계 영향 파악 및 저감방안 수립, 생생, 평화, 인권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무등산국립공원은 지난 2012년 12월 27일 우리나라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마라토너들 “광주 경찰 완벽한 교통통제 고마워요”

1일 치러진 제 50회 3·1절 전국 마라톤 대회의 성공 개최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묵묵히 교통통제에 나선 광주경찰이 있기에 가능했다.

대회에 참가한 마라토너들 사이에서는 경찰의 교통통제를 호평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광주·전남 경찰은 3·1절 마라톤대회가 달려온 지난 반세기 동안 한차례도 빠짐 없이 42.195km에 이르는 마라톤 구간을 묵묵히 지켜왔다.

이날도 교통경찰 등 출동한 경찰 247명은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을 출발해 상무시민공원으로 끝나는 도심 레이스 구간 곳곳을 지키며 원활한 경기 진행을 도왔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3000여명의 마라토너들은 이를 덕분에 큰 사고 없이 봄날의 레이스를 즐길 수 있었다. 경기를 마친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탁월한 교통통제로 아무런 걱정 없이 달린 끝에 기록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전

구간을 지켜준 경찰 덕분에 안심하고 달릴 수 있었다’는 칭찬이 잇따랐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광주시민은 물론 전국의 마라토너가 함께하는 3·1절 전국마라톤 대회의 안전은 광주경찰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경찰은 이날 광주시 서구 상무시민공원 주변 등 3·1절 마라톤대회 경기구간에서 선수단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4대 ‘사회악’(학교·성·가정폭력,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과 범죄 예방요

서부경찰 여성청소년과 물티슈·생수 준비 감사

령 등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서부경찰 여성청소년과를 중심으로 경찰 등 130여명이 참가 선수와 시민들에게 물티슈, 생수 등을 나눠 주면서 올 한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벌였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24면 발행·호보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고차이나가 쏜다

2015년 신학기를 맞아 고차이나에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 2월25일까지 사전 등록 시 수강료 10% 할인
- 중국어 시작반 등록생 전원 교재·단어장 무료증정
- HSK 리스타트 2개월 완성반 등록시 2개월 차 수강료 50% 할인 (기간만료 수험표 지참)
- 기존 수강생 특별할인 3월 등록 수강료 20% 할인 [완성과정, 원어민회화과정]

개강 3월 4일(수) 중국어 시작하게 좋은날~

3월 4일(수요일) 새학기 개강

GO CHINA 스페셜 “2015중국어 완성 프로젝트”

- ▶ 수학을 포기하면 대학입학이 어려워요!
- ▶ 영어를 포기하면 취업이 어려워요!
- ▶ 중국어를 포기하면 미래가 어두워요!

2015년에는 고차이나에서 중국어를 마스터하십시오! 성공의 길을 열어드립니다.

GO China 중국 전문 인력양성

www.gotochina.co.kr
지금 전화주세요!!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 233-9582 (통) 구오탈리

1636 걸고 믿음소망 말하세요

NAVER 대리점모집센터

인생에 대박찬스 한글전화번호 1636에서 잡으세요!

1636 KTX, 1636 롯데면세점, 1636 삼성카드, 1636 KBS, 1636 YTN

지금 잡으세요! 기회는 한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전국민 모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 국가통신과 IT가 하나되어 펼쳐진 사업
- 전국 1%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
- 불경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업
- 평생 연금처럼 보장되는 사업

대리점(사업자) 모집
영업사원 모집(생활보장)
지사장 김연호 010-8607-3228

2014미스코리아 ‘眞 김시연’ 양이 전국모범로 활동하며 모든 당사자들이 (주)올피아의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